

■ 특집1 -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 ■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 다시 읽기*

오영인

I. 서론

세계는 지금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보고된 급성호흡기중후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를 호되게 앓고 있다. 이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질환)처럼 짧게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19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의 재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19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새로운 시대구분 담론을 생성할 정도의 위력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고 불행히도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비대면 학교수업 그리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익숙해지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전염성 질병만큼이나 확산력이 큰 것이 두려움 혹은 공포다. 특정 질병이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 때 그 공포감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증폭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쉽게 외부 것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어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질병의 명칭에 지명을 넣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빈번히 China Virus, 우한폐렴 등으로 불리고 아예 아시아 전역을 하나로 묶어 ‘아시아 병’ 혹은 아시아인 자체를 ‘noting but virus’라 치부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무서울 정도로 많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로 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에서의 반(反)아시아 감정은 연일 뉴스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중국인입국금지요청”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중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불태우자는 목소리마저 들린다.²⁾

제노포비아는 그리스어로 낯선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스(xenos)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의 합성어로 주로 이방인 혐오나 외국인 혐오를 의미한다. 차별적 인종인식을 근간으로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을 배척하고 타자화하는 제노포비아는 일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경시한다거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수용을 반대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전염성 질병과 연결되었을 때 외부인에 대한 혐오는 공포감과 함께 극에 달한다. 즉, 안전한 곳에 대한 열망이 상상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고 그 안전지대를

1) 2020년 10월 26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8만 5천명을 기록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960> (검색일: 2020년 10월 26일)

2)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한을 폐쇄하며 확산을 저지했던 중국은 2020년 9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영국이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시작하자 유럽과는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특히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을 경계하는 외국인 혐오 인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언론도 코로나19를 “foreign virus”라 보도하며 백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가주의”라는 명분으로 중국인을 하나로 묶으려는 공산당의 전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G84BWC> (검색일: 2020년 5월 30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이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이동하는 이주자들이다.

국경도 인종도 계급도 젠더의 경계도 뛰어넘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하여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주조했던 경험은 미국에서도 지난하게 이어져왔다. 미국의 이민사가이자 의학사가인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는 1994년 그의 저서 『조용한 침입자들: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의 위협”』(이후 『조용한 침입자들』)을 통해 미국 내 인종 인식에 대한 역사를 질병과 공중보건이라는 틀로 분석했다.³⁾ 크라우트는 『조용한 침입자들』의 서문에서 연구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세기 중반 세균학과 예방의학의 확립은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미국은 안전지대라고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1980-90년대 전 세계 휩쓴 AIDS의 확산으로 무너졌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것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⁴⁾ 크라우트는 질병과 공포, 그리고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로 평가되는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남동부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던 20세기 전환기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나 『조용한 침입자들』이 아우르는 시기는 미 식민지 시기부터 AIDS의 세계적 확산으로 난민과 이민자들의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활발해졌던 1990년대까지이다. 미국 이민사의

3) 저서의 제목인 “Silent Travelers”는 “조용한 여행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가 다루는 20세기 전환기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되는 전염성 질병을 “여행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보다 외부에서 소리 없이 들어와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로 간주했기에 본고에서는 “Silent Travelers”를 “조용한 침입자들”로 번역하고자 한다.

4)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p. 1-3.

대가 존 하이엄(John Higham)은 서평에서 『조용한 침입자들』을 크게 4개의 주제가 뒤엉킨 연구라 설명한다. 하나는 인종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와 미국 토착주의(Nativism)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질병의 종류와 스케일의 확대,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보건과 의학의 발전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반응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중보건당국에 대한 이민자들의 대응이 그것이다.⁵⁾

본고는 『조용한 침입자들』이 다루는 주제들 중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조용한 침입자들』은 기존 대부분의 의학사 연구가 특정한 하나의 질병을 특정 국적의 이민자와만 연결시켰던 단편적 한계를 넘어서 유색인과 백인을 아우르는 비교적 다양한 인종을 다룬다는 점이다.⁶⁾ 1868년 이후 7~8년 주기로 발병한 천연두나 1870년대 중반의 매독, 1900년의 페스트, 혹은 콜레라나 황열병 같은 열대성 질병까지 거의 모든 유행병의 원천으로 지목받았던 유색인 중국인은 확실한 질병 확산의 원인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크라우트의 주장처럼 백인이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크라우트는 1850년대 이후 아일랜드인이 미국으로 유입했다고 특정 지어졌던 콜레라나 장티푸스, 유대인과 연계된 안질환 트라코마, 그리고 이탈리아인의 소아마비라는 식의 편견과 낙인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정당화되었는지 설명한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이 미국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공포가 똑같은 질병이라도 비백인과 연계되었을 때 어떻게 더 증폭되었는지, 반면에 백인-물론 아직은 백인성을 의심받았던

5) John Higham,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John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Spring, 1997), p. 173.

6) 예컨대,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급증했던 19세기 중반 이후 외국인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졌던 나병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특히 노르웨이인의 질병으로 특정되어 연구되었다. Zachary Gussow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 no. 5(1970); 신지혜,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경험」 (Fall, 2020) (미발표 논문).

남동부 유럽인에 한정돼있지만-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게 되었는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민자들을 주류 권력이나 지배적 체제의 단순한 담지자이거나 소극적 희생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의 치료문화는 복합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공중보건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변주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가 녹아있는 그들만의 치료방법(민간요법)을 들여와 동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적응시키며 문화적 충돌을 완화했고 이것이 미국의 공중보건 및 의학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제 미국의 의학사와 이민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조용한 침입자들』을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 그리고 정착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국 이민사의 고전을 들여다봄으로써 혹시 우리가 국민생명이나 국가안전이라는 공공(公共)성 뒤에 숨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차단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조심스레 희망한다.

II.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이민자들⁷⁾

놀랍게도 자타공인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건국 이후 120년이 지난 1891년 연방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을 창설하면서 부터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건국 초, 그리고 대부분의 19세기 동안 미국은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이민자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민정책 역시 각기 다른 주력 산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7) “Medicalized Nativism”은 알란 크라우트가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의학적 토착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연결시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해왔던 토착주의자들의 인종인식을 드러낸 용어이기에 본고는 “질병 토착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방이 아닌 개별 주들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했다.⁸⁾ 이러한 경향은 남북전쟁 이후에도 노예 노동력의 부재현상을 해방된 흑인 노동력이 아닌 이민 노동력으로 보충하려는 주류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신념하에 개별 주정부나 여러 정부기관들이 아직은 분산된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방역과 건강검역도 이민자들의 역사만큼 긴 역사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 연방이민국이 만들어지기 전, 이민자들의 출입관리와 이민자들의 건강상태 검사 또한 개별 주나 개별 항구에서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남동부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인들은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수많은 사회문제들, 특히 도시 위생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이들 이민자들에게서 찾고자 했다. 따라서 1890년이 되면 방역과 이민자 개인에 대한 건강검역에 있어서 연방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뉴욕은 1892년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입국하는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에 연방이민국 관리들을 전면 배치한 연방이민추방기구(Federal Immigration Deport)를 발족하여 뉴욕에 입항하는 선박의 1등석과 2등석을 제외한 모든 입국 이민자들의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⁹⁾ 실제로 1등석이나 2등석 표를 살 수 없었던 빈민자들은 미국에 “사회적 부담이 될 소지(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민관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신미약자로

8) 1891년 창설된 연방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은 1907년 연방이민귀화국(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으로 확장되었고 1913년 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과 귀화국(the Bureau of Naturalization)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전문화를 위한 조치로 이민국은 입국심사와 국경관리 업무에, 귀화국은 시민권과 귀화한 이민자의 미국화(Americanization)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후 1932년 분리되었던 이민국과 귀화국은 기존 재무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노동부로 그 자리를 옮기며 다시 통합되어 이민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이민국은 1940년 법무부 산하로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 이후 70여 년간 모든 이민자 관련 업무를 통괄했다.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미국사연구』, no. 43(2016), 190쪽.

9)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s* (April 2010), pp. 124-125.

분류되면 입국이 금지되었다.¹⁰⁾ 이민자 추방에 대한 엘리스 아일랜드 모델은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올리언스 등으로 확대되었고 항구나 국경에서의 이민자 신체검역 절차는 점차 그 체계를 완성해갔다.¹¹⁾

이민자에 대한 신체검열은 일단 이민자를 운반하는 운송 선박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검열부터 시작되어 도착하는 항구나 지역 이민국에서 다시 한 번 추가적 검열을 거치는데 이 두 과정을 통칭하여 ‘기본검열(primary inspection)’이라 칭했다.¹²⁾ 이 체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민국장 테렌스 파우더리(Terence V. Powderly)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본검열 체계가 없었다면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큰 이민자 병원”이 되었을 것이라 단언했다.¹³⁾ 그렇게 미국의 국경은 출입문이라는 지리적·물리적 공간을 넘어 의학적 편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인종주의화된 공간이 되었다.

알란 크라우트의 연구, 『조용한 침입자들』은 바로 이 시기 반(反) 이민정서의 표적이 되었던 남동부 유럽인 특히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그리고 유색인 중국인들의 역사경험에 집중한다. 지역적으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주목하고 있는 『조용한 침입자들』은 당시 미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의 수준을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특정 질병과 특정 이민자 혹은 인종을 연결시켜 이민을 제한하려는 구실로 삼았으며 어떻게 이를 정당화해나갔는지 설명한다.

10)연방이민국을 창설한 미국은 같은 해 법 개정을 통해 입국이 금지되어야 할 이민자 부류에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 불분명한 문구는 무한한 주관적 판단의 근거를 열어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법조항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문구였다. Douglas C. Baynton,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in Paul K. Longmore and Lauri Umansky (eds.), *The New Disability History, American Perspectives* (New York, 2001), pp. 33-57; 오영인, 「미국 문맹테스트 이민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이민국의 관계」, 『서양사론』, no. 103(2009), 211쪽.

11)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p. 124-125.

12)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195쪽.

13)Alan M. Kraut, “Health, Disease, and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Spring 2005), p. 54.

한마디로 크라우트에게 있어서 질병과 건강은 인종의 개념이 그러하듯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다. 물론 몇몇 이민자들이 특정 질병에 걸린 채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모든 이민자들을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에 의해 위험한 인종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미국의 토착주의자들은 전염성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여지없이 그 질병의 원인을 이민자의 몫으로 돌려 편견을 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1830년대 창궐하여 19세기 내내 간헐적으로 유행했던 콜레라는 “아일랜드인의 기독교병”으로 19세기 말의 결핵은 “유대인의 병” 혹은 유대인의 대표적 전문 직종으로 알려진 “재단사(tailor)의 병”이라는 혐의가 덧씌워졌고 20세기 초의 이탈리아인들은 모두 “소아마비 보균자”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다.¹⁵⁾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37¹⁶⁾

아일랜드인의 미국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1820년부터이다. 이후 10년간 1만 명 정도로 기록되었던 이민자 수는 1840년부터 1860년 사이 1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에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14)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3, 8.

15) *Ibid.*, pp. 32-34, 108-112, 155-158.

16) 『조용한 침입자들』의 표지에도 상징적으로 사용된 위의 카툰은 1883년 뉴욕 보건국 직원들이 항구로 돌진하는 위협적인 콜레라 보균자들을 살균제 병을 들고 촘촘히 줄지어 막는 모습이다. 여기에서도 전염병 보균자를 거대하고 혐오스럽게 형상화한 반면 이를 막는 미국 관리들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로 표현함으로써 외부 질병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피해 간신히 마련한 이주비용만으로 선박에 올랐던 대부분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정착지는 도착지인 뉴욕이었다. 좁은 공간에 과밀도된 공동주택에 거주했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조사한 뉴욕 보건국은 이들을 위생상 “최악의 이민자(low Irish)”로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1832년 뉴욕에서 콜레라가 창궐하자 바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종교적으로도 이질적이었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못마땅해 했던 다수의 미국인들은 콜레라를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내리신 재앙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아일랜드인의 기독교병”이 된 콜레라는 1849년 재확산되고 뉴욕 거주 아일랜드 이민자의 40% 정도가 사망하면서 콜레라 보균자라는 혐의는 벗겨지지 않았다.¹⁷⁾

한편, 미국 동부 해안 도시에서 주로 발병했던 소아마비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몫이었다. 1916년 뉴욕시에서 10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발병한 소아마비는 해안가를 타고 동부 도시들로 확산된다는 루머가 퍼졌다. 실제로 당시 미국 아동의 사망률인 3.42%에 비해 이탈리아계 아동의 사망률이 1.63%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위생측면에서 미국 문화와는 다른 이탈리아 문화의 부적합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병원에서는 가족 중 병자가 생기면 바이러스 전염가능성으로 인해 반드시 격리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대부분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가족이 아프면 모두 모여야 한다는 관행으로 20명 이상 좁은 방에 모인다가나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의 표현으로 망자에게 키스하는 전통 장례방식 등을 고수했다. 이는 미국인들의 눈에 모범적인 위생규범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평가되었다.¹⁸⁾ 결핵을 유입하고 옮기고 다닌다는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1916년 뉴욕 브롱스와 맨해튼 남부 외곽 빈민가에서 발병했다고 기록된 결핵은 “재단사의 병”이라는 표현처럼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걸리는 유일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인 중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토착주의자들은 유대인 재단사들이 크게 숨만 쉬어도 모두

17) *Ibid.*, pp. 32-35.

18) *Ibid.*, pp. 108-111.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와 혐오감을 퍼뜨렸다.¹⁹⁾

크라우트가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상 위험인자로 낙인찍힌 유럽인들은 남동부 유럽인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중반부터 글자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던 남동부 유럽인들이 기존의 북서부 유럽인 이민자들을 수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백인성을 미국 역사상 가장 좁은 의미로 제한했다. 1790년 귀화법 이래로 백인의 조건은 흑인이 아니거나 인디언이 아니면 족했다. 당연히 유럽인이면 모두 백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기 전환기가 되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만이 유일한 100% 미국인으로 인정되었고 남동부 유럽인은 부족한 그래서 달갑지 않은 백인타자(Inbetween Peoples)가 되었다.²⁰⁾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의학적 편견과 낙인찍기는 이러한 인종 인식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염성 질병이 비백인에게서 발병하는 순간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유색인에게 그대로 이식되었고 질병에 대한 공포감 또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실제로 1868년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콜레라 환자 수가 부각되면서 1832년 이래로 콜레라 유입자라는 편견으로 차별받았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중국인에게로 전이되었고, 1870년 다수의 나병환자가 중국인 공동체에서 속출하면서 그동안 유럽 이민자들에게 가해졌던 의학적 편견도 지워지기 시작했다.²¹⁾ 다시 말해, 비록 백인성을 의심받았던 남동부 유럽인이었으나 이제 그들을 둘러싼 의학적 편견, 오명, 낙인 등은 유색인 중국인 발병자의 등장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 과정을 백인과 비백인의 역사경험을 통해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19) *Ibid.*, pp. 136-137, 155-156, p. 161. “재단사의 병”이라는 용어는 역사학자 어빙 하우(Irving Howe)가 다수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의류공장에 다니거나 재단사로 일하는 것이 주 수입원인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 일찍이 역사학자 데이비드 로디거는 20세기 전환기의 남동부 유럽인을 흑인도 백인도 아닌 백인타자(Inbetween Peoples)이라 규정했다. James R. Barrett and David Roediger, “Inbetween Peoples: Race, Nationality and the ‘New Immigrant’ Working Clas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6:3(1997), pp. 3-44.

21)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82-83; 신지혜,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발표 논문).

『조용한 침입자들』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포가 비백인 유색인과 연관되었을 때 얼마나 더 큰 파급력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단적인 실례(實例)를 1900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의 페스트 발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과 1906년 최초의 무증상 장티푸스 전염자로 기록된 뉴욕의 아일랜드 여성이민자 메리 맬론(Mary Mallon)의 경우를 통해 설명한다.²²⁾ 1906년 8월 발병한 장티푸스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롱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에 거주했던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 메리가 첫 감염자였음을 발견했다. 사실 당시 장티푸스가 새로운 질병은 아니었다. 이미 뉴욕시에 3,500건의 장티푸스 발병과 639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장티푸스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직업적인 질병으로 간주되어 이슈화되지 않았다. 장티푸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9년 이미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메리의 이야기가 뉴욕의 일간지 New York American에 “장티푸스 메리(Typhoid Mary): 아직은 안전하나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라는 선정적이고 위협적인 헤드라인이 실리면서였다. 메리는 뉴욕 일간지와 그녀를 격리 조치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금 당장 증상은 없어도 전염성 질병이므로 의학적으로 격리는 당연한 절차라는 뉴욕 보건국의 주장과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건강한 시민을 격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립적으로 지속되었다.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1915년 연구 결과였다. 장티푸스 전염은 사람이 아니라 감염된 물이나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메리에 대한 인신공격은 멈췄고 이후 ‘장티푸스 메리(Typhoid Mary)’는 그저 병원관계자들이나 비유적으로 쓰는 농담 정도로 잊혀졌다. 그렇게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받던 편견은 서서히 지워져갔다.²³⁾

반면, 유색인 중국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중국인이 다수 미국 서부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 초기다. 중국 내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22)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78-104.

23) 물론, 메리는 격리기간에도 원한다면 친구나 친지방문을 위한 외출이 허가되었다. *Ibid.*, pp. 97-102.

가난한 중국인들은 미국으로 대량 이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도 골드러시와 서부개발에 따른 노동수요 급증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를 콜리(coolie)라 통칭했다. 콜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흑인 노예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⁴⁾ 대부분 빈민이었던 중국 이민자들은 도착지인 서부에 정착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집단거주지인 차이나타운을 형성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습관적인 아편 흡입자이며 중국인의 차이나타운은 도박과 매춘이 횡행하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은 콜레라, 나병, 성병, 페스트 등 온갖 질병이 확산되는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팽배했던 반아시아 감정 속에서 1900년 5월 6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한명의 중국인이 페스트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5월 19일 오전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빠르게 차이나타운 전역을 통제로 격리 봉쇄했다. 그리고 아직 임상실험도 완료되지 않은 실험용 백신 하프킨 세럼(Haffkine's Serum)으로 가득 채운 수많은 주사기로 무장한 의료인들이 타운을 점령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 토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차이나타운은 격리 봉쇄될 곳이 아니라 불태워 없애야 할 공간이라는 요구도 강하게 제시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우선적 방법은 격리였다.²⁵⁾ 그러나 전염병 발병으로 한 지역 전체를 격리 조치하고 위험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 보건당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명백한 과잉대응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한 정상인은 차이나타운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거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반면 주변의 백인들에게는 모두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 한명의 페스트 감염자 사망이 불러온 공포가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동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불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팽배해있던 반중국인 감정

24) *Ibid.*, pp. 79-80.

25) Alan M. Kraut, “Health, Disease, and Immigration Policy”, p. 54.

(Sinophobia)을 고스란히 드러낸 인종차별적 보건정책의 민낯이었다.²⁶⁾ 중국인들의 저항은 예고된 것이었다. 차이나타운 상인 웡 와이(Wong Wai)는 1882년 중국인이민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이래로 현재까지 중국인 이민자들의 인권투쟁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6자회사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 주와 샌프란시스코 보건국, 그리고 책임 전문의 조셉 킨윤(Joseph Kinyoun)을 법원에 고발했다. 공공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 맞서 웡 와이는 아직 임상실험도 완결되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그것도 위험지역을 떠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유일하게 중국인에게만 막아 둔 상황에서 투여하는 것은 “평등한 법적 보호”라는 헌법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자유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평소 중국인에게 비협조적이며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윌리엄 모로(William Morrow) 판사도 이번에는 웡 와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모로는 “차이나타운의 격리 조치와 강제적 백신투여는 특정한 인종 즉 중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페스트 감염에 더 노출되어있다는 아직 증명되지 않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 14조에 의거한 “평등한 법적 보호” 조항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했다.²⁷⁾ 그러나 판결문 하나가 오랜 기간 깊고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여온 차이나타운에 대한 편견을 지워내긴 역부족이었다. 이후 1907년 페스트가 재확산되었을 때 이미 페스트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쥐가 주요 전염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은 또 다시 차이나타운을 격리했다. 게다가 당시 160건의 발병자들 중 중국인은 한명도 없었다.²⁸⁾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중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해진 의학적 편견과 혐오를 지워내는 것은 너무도 요원한 희망이었다.

III. 미국 공중보건의학의 발전과 이민자들

26)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88-90.

27) *Ibid.*, pp. 91-96; Iris Chang,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Viking: Penguin Books, 2003).

2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92.

알란 크라우트는 이민자 통합이 정치인의 입법이나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정한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은 정주민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에 특히 생명을 다루는 질병과 보건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야말로 미국인과 이민자들 사이 양쪽의 복잡한 문화가 밀접하게 조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크라우트는 이질적 문화사이의 완충역할 혹은 매개자의 역할로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한 이민자출신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이민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⁹⁾

19세기 중엽 이후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들은 당시 미국의 병원이나 질병치료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이민자들에게 미국 병원은 “차갑고 사무적인 그래서 낯설기만 한 사람들에 의해 치료”가 행해지는 곳으로 인식되었다.³⁰⁾ 언어, 종교, 생활습관 같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체질도 다른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상호교감 속에서 치료하고 치료받길 희망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저임금의 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던 이민자들에게 미국 병원은 이해하기 힘든 의학용어와 기구들로 가득한 곳으로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곳이었다. 이질적인 미국의 공중보건의학과 위생규범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치료 효과의 유무를 떠나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의료진과 치료공간이었다.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이민자들은 질병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미국의 공중보건통제나 질병치료 방법의 단순한 수혜자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전통적 치료방법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의료진이나 소수이민자 병원의 문화적 완충역할에 힘입어 미국의 공중보건과 위생의식에 적응해나가는 주체였음을 강조한다. 뉴욕시 의사협회의 이탈리아 이민자출신 의사 안토니오

29) Alan Kraut, “Foreign Bodies: The Perennial Negotiation over Health and Culture in a Nation of Immigrant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vol. 23, no. 2(Winter, 2004), pp. 5-6.

30)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199.

스텔라(Antonio Stella)와 로코 브린디시(Rocco Brindisi)는 교육을 통해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전통적 민간치료법에서 벗어나 미국의 위생과 공중보건체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개도해야함을 강조했다. 1904년 스텔라는 그의 논문에서 당시 폐결핵 균을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유입했다는 의학적 편견에 반박했다. 호흡기질환인 폐결핵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누구라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좁은 공간의 노동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결핵의 유전설을 뒤집었다.³¹⁾ 스텔라는 질병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며 이탈리아 이민자 스스로도 두려워했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씻어내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여 내과의사 브린디시는 이탈리아인들이 질병이나 위생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민족공동체 자선기관이나 학교뿐 아니라 일선 병원에서도 위생규범을 전달하고 이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임을 역설했다.³²⁾

이탈리아 이민자출신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유럽 유대인 이민자출신 의사와 이민공동체 또한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자처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의사의 위치는 상당히 명망 높고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그에 맞춰 의사들의 치료비용 역시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유대인 이민자들은 몸이 아프면 치료를 위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민간치료사에게 의지했었다. 그런데 유대인 상호공제조합들(Jewish mutual benefit societies)이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의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유대인 이민자들의 병원치료 접근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³³⁾

더 나아가 이민자들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한 이민공동체의 노력은 이민소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사실 종교적

31)Antonio Stella, "Tuberculosis and the Italians in the United States", *Charities* 12(1904), 486-489;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80.

32)Alan Kraut, "Foreign Bodies", pp. 7-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133-134.

33)Alan Kraut, "Foreign Bodies", p. 10.

소수자를 위한 기독교·유대인 병원의 설립은 남북전쟁 이전부터 시작됐다. 1840년대 뉴욕과 세인트루이스에는 특히 아일랜드인과 독일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기독교 병원이 설립되었고 1850년 독일계 유대인들은 신시내티에 4천명의 환자수용이 가능한 유대인 병원을 신설했다. 1855년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가 그 뒤를 이어 뉴욕 유대인병원(the Jews' Hospital of New York)을 열었고 이후 1930년까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루이즈빌, 덴버, 보스턴 등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유대인 병원이 신설되었다. 이민소수자들을 위한 병원은 유대인 병원뿐 아니라 1894년 폴란드 이민공동체가 “나사렛 성모병원”을 개원하였고 1904년 주세페 파비아니(Giuseppe Fabiani) 의사가 중심이 되어 이탈리아 이민공동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파비아니 이탈리아 병원”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이민소수자 병원에서 환자들은 같은 종교와 언어를 공유하며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더 두려웠던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³⁴⁾ 치료는 의사의 몫이었지만 병원운영에 성직자가 참여했고 종종 수녀가 간호사를 대신해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유대인 병원의 경우 음식이나 종교의식을 유대인 의식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했다. 물론 병원 시설 자체는 열악했고 병상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1900년 페스트나 1918년 스페인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돌 때 이민소수자 병원은 같은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민족 배경이 다른 환자들 치료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실제로 스페인독감 집단발생 때 뉴욕 유대인병원에 85명의 간호사들이 봉사를 자처했고 그 중 18명이 폐렴증상으로 고생했으나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돌봤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러한 이민소수자들의 병원이 미국인들의 눈에는 이질 종교의 집단행동이라기보다 치료목적으로 설립된 곳이고 무엇보다 미국인들과는 분리된 치료공간이라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비취졌을 것이라 평가한다.³⁵⁾ 게다가 이 긍정적 시각은 한발 더 나아가 남동부 유럽인들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 역설한다.

34)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 128.

35)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p. 44-49, 197-203.

남동부 유럽 백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질과 치료체계를 갖고 있었던 유색인 중국인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치료방법이 이해되는 의료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아시아인 특유의 체질의학과 한방약초의 독특한 전통적 치료법으로 인해 환자가 생길 때마다 주로 각 가정에서 민간치료법에 의지했었다. 미국인들에겐 너무도 생소한 중국이민자들의 질병 치료법은 그저 미개하고 비정상적인 미신행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1900년 페스트의 창궐과 주 보건당국의 과잉 대응을 겪으며 중국인 이민자들은 질병치료에 있어서 전통 민간치료법만을 고집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이에 1900년 중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에 “텅 와(Tung Wah) 진료소”를 신설하고 3명의 백인 의사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서양의술을 도입했다. 이곳은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할 때 유일한 중국인들의 치료 장소이기도 했다. 이후 차이나타운 중국인 이민공동체들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1925년 5층 건물에 55개의 병상을 갖춘 “중국인 병원(Chinese Hospital)”을 설립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서양의학과 한방의술을 동시에 제공하기 시작했다.³⁶⁾ 그런데 똑같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부 유럽인들을 위한 병원이 그들에게 가해졌던 오명과 낙인을 지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의 경험은 너무도 달랐다. 중국인병원의 개원 소식에 당시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장 윌리엄 헤슬러(William Hassler)는 샌프란시스코 백인 거주자들에게 차이나타운의 새 병원을 경계하라는 공문을 띄웠던 것이다.³⁷⁾

백인과 비백인 간의 상이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침입자들』은 이민자들의 민간치료법과 미국의 과학적 치료법과의 동화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의학이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상호영향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의사나 간호사들도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치료방법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문화적 태도 차이를 지켜보며 이민자들의 고유한 치유책도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안적인

36) *Ibid.*, pp. 197-198.

37)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 129.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조용한 침입자들”인 전염성 질병은 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질병의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역설한다. 외부 질병의 유입은 물론이고 이민자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빠르고 정확한 질병 진단기술의 발전 또한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⁸⁾

IV. 결론

알란 크라우트의 『조용한 침입자들』은 미국 이민사를 의학사에 접목시켜 인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런데 『조용한 침입자들』이 발간되었던 1994년 당시에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저자가 서문에서 연구의 계기로 지목한 것처럼 1990년대 미국은 AIDS 팬데믹 현상으로 외부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게다가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든 반이민정서가 만연해져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민자들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의학적 편견으로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차별했던 네거티브 역사담론을 들춰낸 『조용한 침입자들』에 대한 학계반응은 시간소개 정도에 그칠 뿐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조용한 침입자들』이 오히려 의사나 특히 방문간호사 등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특정 질병을 경험한 이민자들의 실질적 목소리와 구체적 예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크라우트가 다루는 연구시기 또한 흐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두서가 없다는 혹평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³⁹⁾ 그러나 이후 이민사에서 질병과 이민자, 그리고 공중보건과의

38)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8.

39) 『조용한 침입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음 참조. Higham, “Silent Travelers” (Book Review), pp. 173-174; Georgina Feldberg,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2(September, 1995), pp. 786-787; Edward J. Larson,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관계연구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조용한 침입자들』은 거의 모든 후속연구에서 빠짐없이 인용되고 소개되는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듯하다.⁴⁰⁾

『조용한 침입자들』에 의하면 미국 역사 속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이라는 두 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영커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⁴¹⁾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20세기 전환기는 특히 남동부 유럽인들이 전례 없이 몰려들어 도시를 중심으로 집단적 빈민거주지를 형성했던 미국 내 반이민정서가 절정인 시기였다. 서부의 경우 골드러시와 서부개발에 따른 노동수요 급증으로 중국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반아시아감정이 최고조에 이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감은 제도나 정책으로 표출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났다. 크라우트는 특히 이 시기 건강, 질병, 보건, 위생 등에 관련해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했던 의학적 편견과 인종차별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삶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용한 침입자들』은 콜레라나 황열병, 나병과 같은 열대성 질병뿐 아니라 천연두, 매독, 페스트까지 거의 모든 유행병의 원천적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유색인 중국인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유래되었다고 의심되는 장티푸스나 결핵 등의 보균자로 유럽 백인이 견뎌야했던 의학적 편견까지 비교적 고르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조용한 침입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가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비백인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더

History, vol. 26, no.4(spring, 1996), pp. 724-725.

40) 『조용한 침입자들』 이후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는 알란 크라우트 본인의 다수의 연구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몇 가지 연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ancy Tomes,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Naya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aynton,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pp. 33-57; Natalia Molin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크라우트의 후속연구는 참고문헌 참조.

41)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p. 9.

큰 파급력을 보여주는지를 백인의 경우와 대비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타자화된 백인으로 차별받았던 남동부 유럽인들도 중국인 발병자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그들에게 가해졌던 의학적 편견과 멍에에 걸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부에서는 “저급한 백인”이었던 남동부 유럽이 반아시아정서가 팽배한 서부에선 다시 “고귀한 백인”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학자 매튜 제이콥슨(Matthew F. Jacobson)의 주장이 상기되는 대목이다.⁴²⁾

『조용한 침입자들』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주장은 질병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이민자들을 권력이나 미국의 공중보건통제의 단순한 담지자이거나 소극적 희생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의 과학적 질병치료법과 이민자들의 민간치료법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변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민자출신의 의료진과 이민소수자를 위한 의료시설의 등장은 이질적인 두 문화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자들이 유입하는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 및 의학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고 역설한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조용한 침입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 전염성 질병의 위협을 무조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크라우트의 주장처럼 근거 없는 의학적 편견이자 인종주의의 발로다. 어찌면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일상에 파고들어 퍼져나가는 백신조차 없는 바이러스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제노포비아 감정에 치우쳐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며 국경을 걸어 잠그기엔 세계가 너무 크고 너무 촘촘히 연결되어있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학술연구원, yioh77@naver.com

42) Matthew F. Jacobson,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p.95-96.

주제어(Key Words):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이민자(Immigrant), 공중보건(Public Health), 의학적 편견(Medicalized Prejudice), 문화적 매개자(Cultural Mediator)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2, 게재확정일: 2020.11.16)

<국문초록>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 다시 읽기

오 영 인

본고는 미국 의학·이민사의 고전이 된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의 저서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이하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시 검토한다. 세계는 지금 2019년 12월 최초로 보고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만큼이나 확산력이 큰 것이 두려움 혹은 공포다. 국경도 인종도 계급도 젠더의 경계도 뛰어넘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특정 질병을 특정 인종과 동일시하여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주조했던 경험은 미국에서도 지난하게 이어져왔다. 질병과 공포, 그리고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로 평가되는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은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장 중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상이한 적응과정과 경험이고 둘째는 정착사회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긍정적 역할이다. 즉, 질병치료에 있어서 외부의 민간치료법과 미국의 과학적 치료방법이 동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의학의 발전에 서로 고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국 이민사의 고전을 들여다봄으로써 혹시 우리가 국민생명이나 국가안전이라는 공공

(公共)성 뒤에 숨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차단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Abstract>

“Medicalized Nativism” and Xenophobia in American
History:

Rereading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y Alan M. Kraut

Oh Young-In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arguments of Alan Kraut’s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which has become a classic text of American medical and immigration history. After COVID-19, we all are experiencing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upheaval. Historically, the crossing boundaries were essential to the creation of panic and immigrants were key to the panic. *Silent Travelers* is the first book that attempts a comprehensive view of immigration and health. It says depriving immigrant minorities of their rights in the name of science and medical science is nothing new in American history. This study focuses two points among *Silent Travelers*’s arguments. First, *Silent Travelers* tells us diverse historical experiences from diverse immigrant groups, across ethnic lines. Second, *Silent Travelers* argues that immigrants were not just passive pawns in the discourse over their health, choice of health care, or public health policies imposed on them. Rather, it shows immigrants’ posi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ublic health and medicine. By reading *Silent Travelers*, I hope that we take a chance to reflect on any possibility of all forms of xenophobia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health especially as we deal with current issue of COVID-19.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Chang, Iris,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Viking: Penguin Books, 2003).
- Jacobson, Matthew F.,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Kraut, Alan M.,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 Molina, Natali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Shah, Nayan,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Tomes, Nancy,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Wray, Matt, *Not Quite White: White Trash and the Boundaries of Whitenes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2. 논문

- 신지혜,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경험」 (Fall, 2020) (미발표 논문).
-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미국사연구』, no. 43(2016).
- _____, 「미국 문맹테스트 이민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이민국의 관계」,

『서양사론』, no. 103(2009).

Barrett, James R. and David Roediger, “Inbetween Peoples: Race, Nationality and the ‘New Immigrant’ Working Clas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16:3(1997).

Baynton, Douglas C.,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in Paul K. Longmore and Lauri Umansky (eds.), *The New Disability History, American Perspectives* (New York, 2001).

Georgina Feldberg,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2(September, 1995).

Gussow, Zachary, and George S. Tracy, “Stigma and the Leprosy Phenomenon: The Social History of a Diseas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4, no. 5(1970).

Higham, John,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Spring 1997).

Humphreys, Margaret, “No Safe Place: Disease and Panic in American History”,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12, no. 4(Winter 2002).

Kraut, Alan M. “Doing as Americans Do: The Post-migration Negotiation of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101, no. 3(December 2014).

_____,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s*, vol. 125(April 2010).

_____, “Health, Disease, and Immigration Policy”,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vol. 24, no. 3(Spring 2005).

_____, “Foreign Bodies: The Perennial Negotiation over Health and Culture in a Nation of Immigrants”,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vol. 23, no. 2(Winter, 2004).

Larson, Edward J.,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ook Review),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26, no.4(spring, 1996).

3. 웹 사이트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960> (검색일: 2020년 10월 26일)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government-politics-ko/the-statue-of-liberty-ko/> (검색일: 2020년 9월 5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G84BWC> (검색일: 2020년 5월 30일)